

추리소설에서의 인식양태 번역분석: 에드거 앨런 포의 「모르그 가의 살인」을 중심으로

이 경 희
(동국대)

1. 서론

현대 추리소설¹⁾이라는 장르를 있게 한 작가, “탐정 소설의 아버지”(Thoms 2002: 133)로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 1809-1849)를 꼽는다. 피셔(Fisher 2008: 58)에 따르면 “탐정(detective)”소설, 포가 선호한 표현으로 하면 “추론(ratiocinative)” 소설 중 「모르그 가의 살인(*The Murders in the Rue Morgue*)」은 포의 글쓰기 형식이 고딕 소설에서 근대 추리소설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첫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포는 오귀스트 뒤펡(C. Auguste Dupin)이라는 뛰어난 관찰 능력과 분석 능력을 지닌 추론가를 처음 소개하였고, 소설 속에서 뒤펡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추론²⁾

(reasoning)”(2008: 59)이다.

범죄사건의 결말이 먼저 제시되고 범인의 신원과 범행동기를 찾아가는 서사구조의 추리소설에서 정보제공 방식은 이야기의 구성과 전개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추리소설에서 탐정과 독자는 숨겨진 정보로부터 범죄사건의 전말을 추론해내는 “거꾸로 추론하기”(이정옥 2014: 49) 과정을 경험한다. 독자는 사건 이야기와 사건해결 이야기로 구성된 추리소설의 서사구조 단계³⁾를 예측하면서 이야기를 읽어 나가게 되는데, 사건 이야기에서 제시된 정보를 기반으로 누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등 의문과 호기심을 갖고 범인을 찾기 위한 추론을 시작한다. 이후 새로운 정보가 제공될 때마다 조각들을 맞추며 사건을 해결하려는 추론은 계속되며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과 긴장감도 지속된다. 이처럼 추리소설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논리적인 추론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서사구조의 단계적 형식을 효과적으로 유지하여 추리의 긴장감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포는 「모르그 가의 살인」에서 뒤펡의 명석함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 “숨기는 글쓰기 형식(shielding transformation)”을 보여주는데, 사건에 대한 정보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서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건 정황과 증언이 실린 신문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어지고 “숨겨져 있지만 회수할 수 있는 단서(hidden but recoverable clues)”를 제공한다(Bronzwaer, 1975: 349-350).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뒤펡은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지만 귀납적 분석이 “더 자주”(Nygaard 1994: 229-230) 사용된다. 개별적인 사실이나 원리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적 추론의 근거는 명제이며 명제의 사실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를 들 수 있다.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사람 같았다. 프랑스어가 아닌 것은 확실했다. 남자 목소리인지는 잘 알 수 없었다. 여자였을 수도 있다” (권진아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냄”, 추리(推理)는 “미루어 생각하여 논함,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냄”으로, 논리적인 상황에서 두 어휘는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1) 추리소설이라는 용어에 관한 논의는 박진영(2018: 35-48), 이주라(2010: 83) 참조.
2) 추론(推論)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서 생각함, 어떠한

3) 미스터리 소설에 대한 플롯 단계는 도브(Dove 1997: 35) 참조. (problem, first solution, complication, period of gloom, dawning light, solution, explanation)

역 2018: 21)에서와 같이, 추측, 확신, 가능성 등 발화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체계인 인식양태는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되는 정보를 숨기거나 드러내며 독자의 궁금증을 자극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긴장감과 호기심(suspense and curiosity)”(Dutta-Flanders 2017: 190)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론을 기반으로 한 소설의 시초라고 여겨지는 「모크 가의 살인」, 영한번역본 네 편을 대상으로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언어표지의 번역양상을 비교분석해, 추리소설의 번역에서 양태표현이 장르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에서의 양태체계와 의미 및 언어표지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장르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함을 보이고자 한다. 양태표현의 번역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 양태의 개념과 체계 및 양태의미를 설정하고 양태의미를 표현하는 언어표지를 범주화한다.

2. 양태의 개념과 체계 및 언어표지

2.1 양태의 개념과 체계

양태(modality)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⁴⁾ 일반적으로 발화명제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견해와 판단을 나타내는 체계를 의미한다.

그 중 텍스트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는 요인을 연구한 심슨은 양태를 “발화에 표현된 명제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 또는 의견,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태도”(Simpson 1993: 47)로 정의하고, 양태는 장르의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양태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른 장르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양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4) 고영근(1986/1995, 2004), 권재일(1992/2011), 김지은(1998), 박재연(1999, 2003, 2006), 서정수(1994/2006), 엄녀(2010), 이선웅(2001), 임동훈(2008), 장경희(1985, 1995), Bybee & Fleischman(1995), Coates(1995), Halliday(1976), Lyons(1977), Palmer(1986/2001) 등

양태체계를 의무양태, 희망양태, 인식양태, 지각양태로 구분하고 각 양태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의 언어표지를 제시하였다.

심슨이 구분한 의무양태와 희망양태는 특정행위 수행과 관련된 양태로, 의무양태는 허락, 의무, 요구 등의 의미를 나타내며, 희망양태는 특정행위에 대한 화자의 희망과 바람을 나타낸다. 인식양태는 발화명제의 사실성(factuality)에 대한 화자의 확신, 인식이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내며, 지각양태는 인식양태의 하위 범주로 시각, 청각적 개념을 포함한 화자의 지각이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낸다.

심슨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특정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한 할리데이(Halliday)의 체계기능문법을 기반으로 양태를 언어의 대인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을 표현할 수 있는 문법체계로 설명하였는데, 할리데이는 양태를 “판단에 대한 상태와 타당성을 표현”(Halliday 1976: 198)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발화의 기능에 따라 양태체계를 ‘modalization’과 ‘modulation’으로 구분한 바 있다. 발화 내용이 ‘정보’에 해당하는 ‘modalization’은 개연성과 빈도의 양태의미를 나타내며, 각각 발화명제에 대해 화자가 판단하는 개연성의 정도, 발화명제 내용의 발생빈도에 대한 화자의 견해를 나타낸다. ‘modulation’은 발화 내용이 제안에 대한 행동과 관련이 있고 의무와 의지(의향)로 구분된다.

심슨의 양태체계		할리데이의 양태체계	
양태체계	양태의미	양태체계	양태의미
의무양태 (deontic modality)	허락, 의무, 요구 (permission, duty, requirement)	Modulation	의무 (Obligation: ‘is wanted to’)
희망양태 (Boulomaic modality)	희망, 바람 (hope, desire)		의지 (Inclination: ‘wants to’)
인식양태 (epistemic modality)	지식, 확신, 인지 (knowledge, belief, cognition)	Modalization	개연성 (Probability: ‘may be’)
지각양태 (perception modality)	지각 (perception)		빈도 (Usuality: ‘sometimes’)

국내양태연구에 있어 먼저 장경희(1985: 13)는 양태에 대해 “사건 자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범주”로, 고영근(1986/1995: 260)에서는 “서법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되는 의미영역은 물론, 명사, 부사 등의 어휘범주와 기타 어순 바꿈, 어조 등에 두루 확인되는 의미영역”으로, 권재일(1992/2011: 137)에서는 “일의 시간과 관련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로 설명하였고, 김지은(1998:19-20)에서는 “가능성, 개연성, 필연성, 의무, 의도, 희망, 회의, 추론 등 전통적으로 양태의 의미범주로 다루어진 것들뿐 아니라 평가의 영역까지도 포함”하였으며, 박재연(1999: 202)에서는 “화·청자 간에 전달되는 정보의 성격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이선웅(2001: 327)에서는 “화자가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 문장 내에서 표현하는 심리적,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양태체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장경희(1985)에서는 지각, 짐작, 앎의 양태의미를 표현하는 인지양태와 발화내용의 확실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평가양태로 구분하였고, 고영근(2004)에서는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인식양태, 화자가 청자에게 지시하는 행위 수행과 관련된 양태를 의무양태로 구분하였다. 박재연(2006)에서는 인식양태와 행위양태로 구분하고 인식양태가 나타내는 양태의미를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증거, 가정 등으로 제시하였다. 엄녀(2010)에서는 추측, 당연의 양태의미를 나타내는 인식양태와 능력, 희망, 의지, 의무 등을 나타내는 비인식양태로 구분하였다.

연구자	양태체계	양태의미
장경희 (1985)	인지양태	화자의 지각, 짐작, 앎
	평가양태	발화내용의 확실성에 대한 태도
고영근 (1986/2004)	인식양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사실적 인식
	의무양태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 수행을 지시
박재연 (2006)	인식양태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증거, 가정
	행위양태	의무, 허가, 의도, 소망, 능력
엄녀 (2010)	인식양태	추측, 당연, 근접
	비인식양태	능력, 희망, 의도, 의지, 의무, 허가, 금지

위에서 살펴본 연구를 포함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영어의 양태개념과

한국어의 양태개념의 공통점은 언어의 기능적인 관점에서 발화내용에 대해 화자가 갖는 태도를 표현한다는 점이다. 이를 종합하여 양태는 발화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양태체계와 의미는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양태체계	양태의미
인식양태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 지각
의무양태	의무, 요구, 허용, 희망, 의지, 능력

발화내용, 즉 발화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위와 관련된 의무양태, 정보 인식과 관련된 인식양태로 구분할 수 있고, 인식양태는 발화내용의 사실성에 대해 확신의 정도 차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주관적인 판단인지, 외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판단인지 등 지각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본고의 분석대상인 인식양태의미를 표현하는 언어 표지를 범주화한다.

2.2 인식양태의미를 표현하는 언어표지

양태를 통해 발화자는 “긍정과 부정의 양 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정도의 차이”(Halliday 2004: 146-147)를 표현할 수 있으며, 할리데이는 그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강한 확신은 *must, certainly*, 중간 정도의 확신은 *will, probably*, 약한 확신은 *may, possibly*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2004: 619). 심슨은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must, must surely*, 중간 정도의 확신은 *may, may probably*, 약한 확신은 *could, might possibly* 등을 사용해 표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1993: 50).

영어에서 양태의미의 정도는 “It is probably raining, It is very probably raining, It is almost certainly raining”(Lyons 1977: 804)과 같이 관련 어휘와 문법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더 세분화되어 표현될 수 있고, 실제 언어사용 분석에 있어서 어휘 자체의 절댓값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상황별로 의미를 비교하여 그 정도의 차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5) 심슨은 “It could possibly be the most effective treatment”에서처럼 두 가지 양태표지가 함께 쓰

여 동일한 정도의 양태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조화 조합(harmonic combination)”(1993:152)으로, “These tablets *really could* be of great help to you”에서처럼 약한 정도와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양태표지가 함께 쓰이는 경우는 “부조화 조합(non-harmonic treatment)”(1993:153)으로 구분하였는데, ‘really’는 약한 정도의 양태의미를 나타내는 ‘could’에 영향을 미쳐 확신의 정도가 강해지는 효과를 준다.

이처럼 다양한 정도로 표현되는 양태의미 중에서 화자의 가장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은 양태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정언명제로, “It is raining”이라는 정언명제가 “It must be raining”이라는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양태조동사를 사용한 경우보다 더 강한 확신을 나타낸다(Lyons 1977: 808). 강한 확실성을 나타내는 양태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양태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비양태, 정언명제보다 확실성의 정도는 낮아지는데, 양태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명제의 사실성에 대해 화자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확신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발화내용에 대한 확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영어에서 지식, 확신, 인식 등의 인식양태의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은 양태조동사(must, will, would, should, may, can, could, might), 양태어휘동사(believe, think, suppose, guess), 형용사 활용(be certain that, be probable that, be possible that), 양태부사(certainly, definitely, no way, probably, perhaps, maybe, possibly), 명사(certainty, probability, possibility), 표지들의 결합(must certainly be true)이 있고, 지각의 양태의미를 나타내는데 형용사와 부사(clearly, obviously, apparently, supposedly, arguably)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지식, 확신, 인식 등의 인식양태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은 동사(믿다, 단정하다, 확신하다, 추측하다, 상상하다, 생각하다), 형용사(틀림없다, 확실하다, 정확하다, 분명하다), 부사(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아마, 혹시), 설마, 생각건대, 짐작하건대), 명사(정확, 추측, 짐작), 선어말어미(-겠-, -더-), 어말어미(-네, -군), 양태용언(보다, 모르다),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의 결합표현(-겠네), 관용표현(-르 수 있다, -르 것 같다, -르 듯하다) 등이 있다. <표 1>은 영어

와 한국어에서 인식양태의미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언어표지를 정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1> 영어와 한국어의 인식양태표현 비교⁶⁾

영어		정도	한국어	
인식양태표현			인식양태표현	
양태조동사	must, (ought to)	강	의존명사	것
			어말어미	-네, -군, -지
			결합관용표현	-르 것이다, -르 것이 틀림없다
형용사/부사	no doubt, doubtless, certain/ly, sure/ly, clear/ly, evident/ly, apparent/ly		형용사/부사	틀림없다(이), 확실하다(히), 분명하다(히), 명백하다(히)
명사	certainty		명사	정확, 확인, 단정
양태어휘동사	know, believe		동사	알다 확신하다, 믿다
양태조동사	will	↓	의존명사	모양
	would, should		선어말어미	-겠-
	may		어말어미	-네, -군, -지
형용사/부사	probable/probably perhaps, maybe		양태용언	보다, 모르다, 쉽다
			결합관용표현	-르 것이다, -르(-르) 것 같다, -가 보다, -르(-르) 듯하다/듯싶다
명사	probability		부사	생각하건대, 추측하건대 아마
양태의미동사	think, seem, suppose		명사	생각, 추측
			동사	생각하다, 추측하다
양태조동사	could	약	결합관용표현	-르 수(도) 있다, -르 법하다
	might			-르 지(도) 모르다
형용사/부사	like/ly, possible/possibly, alleged/ly, doubtful/ly		형용사	가능한
			부사	혹시, 어쩌면, 불확실한
명사	possibility		명사	짐작, 가정
양태의미동사	guess, imagine		동사	짐작하다, 가정하다

5) 한국어의 경우 강소영(2001)에서는 상황별 차이를 설명하면서 예문 “아무 것도 안 오실(르테니까, 르거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마”에서 ‘-르 터이-’가 ‘-르겠-’보다 확신의 정도가 약해보임을 비교하였다.

6) “영어와 한국어의 인식양태 표현비교” (이경희 2015: 167-169) 를 양태의미의 정도로 구분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영어의 양태의미 정도를 한국어의 양태의미 정도에 대응시켜 보았을 때 정도의 일대일 대응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강한 정도의 양태의미에서보다 중간과 약한 정도에서의 일대일 대응이 더 어려운데 정도의 범위가 중첩될 수도 있다. 예로, 박재연(2003: 206)에서는 영어 ‘may’가 나타내는 ‘추측’이라는 양태의미 정도는 한국어에서 선어말어미 ‘-겠.’이 표현하는 확신의 정도와 결합관용표현인 ‘-르지 모르다’의 중간쯤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어에서 ‘생각하다’는 중간 정도의 확신과 약한 정도의 확신에서 모두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또는 한 표현이 강한 확신이나 약한 확신의 정도를 표현하기도 하여 상황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양태의미를 나타내는 언어표지의 대응 관계도 마찬가지로인데, 예로 영어의 양태 조동사가 나타내는 양태의미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양태의미는 하나의 언어표지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형용사 등 여러 표지가 결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양태의미를 표현하는 언어표지와 그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언어마다 특성이 다르고 어휘용법과 정도를 정확하게 대응시키기는 어렵지만 인식양태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3. 원천텍스트의 특성과 목표텍스트 분석방법

3.1 원천텍스트의 특성과 구성

분석대상 원천 텍스트인 「모르그 가의 살인(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1841)」에서 처음 소개된 오귀스트 뒤팽(Auguste Dupin)은 뛰어난 관찰 능력과 분석 능력의 소유자로,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로제의 수수께끼(The Mystery of Mary Roget, 1842)」와 「도둑맞은 편지(The Purloined Letter, 1844)」에도 등장하여 사실에 기반을 둔 논리적인 분석과 추리로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고 해결하는 그 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보여준다. 이 세 편의 소설에서 사건과 관련되어 주어진 정보와 자신이 직접 관찰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추론(ratiocinative)”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뒤팽은 현대 추

리소설 속 전문탐정과 차별화된다(Todorov 1973: 119, Paul Jahshan 2002: 86에서 재인용). 특히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모르그 가의 살인」에서 뒤팽은 증언을 분석하고 조사함으로써 사건을 꿰뚫어 보고 여러 가능성 중 해결안을 도출한다.

많은 추리소설 장르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사건을 조사하는 이야기”로 구성되는데,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발생하여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 정보는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Paul Jahshan 2002: 79). 포는 「모르그 가의 살인」에서 일반적인 관찰력과 분석력을 가진 ‘나’라는 1인칭 서술자(narrator)를 통해 사건의 제시와 해결과정을 서술하며, <표 2>에서와 같이 게임에 관한 서술자의 이야기, 신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 뒤팽의 사건조사 이야기로 구성된다.

<표 2> 「모르그 가의 살인」의 이야기 구성

구성		내용
게임 이야기	사건 해결의 능력 제시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정확한 관찰력과 분석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이야기
	사건 해결의 인물 소개	일반적인 분석력의 소지자인 ‘나’와 뛰어난 분석력의 소지자인 ‘뒤팽’의 만남
사건 이야기	사건 정황 제시	‘나’와 ‘뒤팽’이 사건정황, 증언, 조사상황을 보도하는 신문 기사를 봄
	사건 조사	경찰의 증인 조사, 사건현장 조사
	사건 추론	경찰의 일반적 추론(금전문제)
사건조사 이야기	사건 해결(경찰의 오류)	무고한 은행직원을 범인으로 검거
	사건 조사	범인 검거 소식을 들은 ‘뒤팽’의 현장조사
	사건 추론	신문기사,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뒤팽의 논리적 추론, 신문광고로 범인과 관련된 인물 유인
	사건 정황 제시	사건의 진범인 오랑우탄의 주인인 선원이 찾아와 목격된 사실 진술
	사건 해결(뒤팽의 정정)	오랑우탄은 잡히고 잘못 검거된 인물 석방

소설의 도입부는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정확한 관찰력, 뛰어난 이해력과 통찰력, 논리적인 분석 능력과 추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설명으로 시작한

다. 이 부분은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관찰력과 분석력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어느 날 1인칭 서술자인 ‘나’와 뒤펡은 신문 석간에 난 살인사건 기사를 읽게 된다. 저자는 신문 기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첫 기사에서는 사건을 발견하게 된 정황과 사건현장 상황이 보도된다.

다음 날 신문에 추가로 보도된 내용은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조사를 받았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과 함께 12명의 증언을 기술하고 있다. 이후 철저한 채수색과 목격자 조사에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기사가 실리고, 추가 기사에서는 증언에서 상술된 정황들 외에 확증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직원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실린다.

이 체포 소식을 듣고 뒤펡은 경찰의 오류를 지적하며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뒤펡은 탁월한 관찰력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범인이 사람이 아닌 오랑우탄임을 밝혀낸다. 오랑우탄의 주인인 선원이 밝힌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뒤펡의 추리 내용과 일치함이 확인되고, 무고한 은행직원은 풀려나게 된다.

살펴본 이야기의 구성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사건의 정황과 증언을 보도하는 신문기사 부분인 사건 이야기에서 인식양태의미를 나타내는 언어 표지들의 번역 양상을 분석한다.

3.2 목표텍스트와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모르그 가의 살인」번역이 실린 포의 소설집 중 4편을 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⁷⁾. 먼저 최근의 작품으로 에드거 앨런 포의 사후 170주년을 기념해 시공사에서 출간한 『에드거 앨런 포 추리 공포 단편집, 모르그 가의 살인』(2018)에 수록된 권진아 번역의 「모르그 가의 살인」(TT1), 국일 미디어에서

7) 포의 단편집은 『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2005: 39-40)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1955년 출간된 해방 후 최초 번역서 이후, 출판사가 다르지만 내용이 같은 경우, 원문과는 다르게 번안한 경우, 다른 작가들의 추리소설과 함께 묶어 출간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총 81판본이 확인되었으며, 기존의 번역본을 참고로 윤문하는 사례도 많아 제대로 번역된 것으로 검토 대상이 될 만한 것은 12종 정도라고 하였고, 단편집마다 번역된 작품의 종류와 수도 다르다. 본고에서는 1980, 1990, 2000, 2010년대 출판본 중 한 편씩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출판한 『에드거 앨런 포 단편집 마리 로제의 수수께끼』(2003)에 수록된 박광규 추리소설비평가가 번역한 「모르그 가의 살인」(TT2), 도서출판 하늘연못에서 출판한 『에드거 앨런 포 단편집 3. 뒤펡의 미소』(1999)에 수록된 홍성영 번역의 「모르그 가의 살인」(TT3), 상서각의 『세계단편문학대계 4: 포우 단편집』(1983)에 수록된 「모르그街의 殺人事件」(TT4)이다.

텍스트 구성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문 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사건 이야기 부분의 정보는 이후 사건 조사와 해결이야기에서 뒤펡의 추론내용에 기반이 되어 향후 범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사건 이야기(신문기사)		사건조사 이야기(뒤펡의 추론)		
사건현장의 특이성	현장에 남겨진 금화와 물품	→	금전적 동기 배제	범인의 특이성
	피해자의 상태 (살해방법)	→	초인간적인 강한 힘, 잔인함, 야수성	
	침입 및 탈출 방법	→	뛰어난 민첩성과 초인간적인 힘	
두 목소리에 대한 증언의 특이성	거칠고 화난 프랑스 남자의 소리	→	사건을 목격한 사람 존재	
	다양한 국적의 증인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	→	사람의 소리 배제	

기사 내용에서 뒤펡이 주목한 것은 사건 현장의 특이성과 증언의 특이성으로, 이 내용을 토대로 범인의 범행동기는 금전적인 동기가 아니며, 잔인함과 야수성, 초인간적인 힘을 가진 존재이고, 다양한 국적의 증언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내는 존재임을 추론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 제시할 텍스트 분석 사례에서는 뒤펡의 추론과정에 기반이 되는 사건현장의 특이성, 증언의 특이성에 나타난 인식양태의미와 그 정도의 번역, 영어와 한국어의 인식양태의미 표현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4. 텍스트 분석

4.1 사건 이야기(신문기사): 사건현장의 특이성

먼저, 모르그 가의 저택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발생을 알리는 첫 번째 신문기사의 첫 부분을 비교해 본다.

예시 1	모르그 가 저택에서 살인사건 발생
ST	This morning, about three o'clock, the inhabitants of the Quartier St. Roch were aroused from sleep by a succession of terrific shrieks, issuing, apparently , from the fourth story of a house in the Rue Morgue, known to be in the sole occupancy of one Madame L'Espanaye, and her daughter, Mademoiselle Camille L'Espanaye. (147, 이후 모든 강조는 필자의 것임)
TT1	오늘 새벽 3시경 생로슈 지역 주민들은 연달아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깬다. 그 비명 소리는 분명 레스파냐에 부인이 딸 카미유 레스파냐와 단들이 살고 있는 모르그 가의 저택 4층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17)
TT2	오늘 새벽 3시쯤, 생 로스가 주민들은 계속해서 들려오는 무서운 비명소리에 잠을 깬다. 그 소리는 레스파냐라는 부인과 그녀의 딸 카미유 레스파냐 양이 살고 있는 모르그 가의 어느 집 4층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18-19)
TT3	오늘 새벽 3시경, 생로시 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연이어 들리는 끔찍한 비명 소리에 잠을 깬다. 그 비명 소리는 레스파냐 부인과 딸 카미유 양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모르그 가의 건물 4층에서 난 것이 분명했다 . (17)
TT4	오늘 아침 세 시경에 생.로슈구(區)의 주민들은 무서운 비명 소리에 잠이 깨었다. 그 비명은 어느 집 4층에서 일어났다. 그 집에는 레스파냐부인과 딸 카미유 레스파냐양만이 살고 있음을 이웃에서는 알고 있었다. (81)

예시 1은 사건발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ST에서 사용한 ‘apparently’는 지각(perception)의 양태의미를 나타내며 강한 정도의 확신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모르그 가의 저택 4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현한다. TT1과 TT3에서는 ‘분명(하다)’라는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ST와 유사한 정도의 확신을 나타내는 반면, TT2는 ‘-것 같다’라는 관용표현으로 강하지 않은 확신을 나타내어 ST에 비해 그 정도가 약화되었고, TT4에서는 양태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의심의 여지없이

“비명은 어느 집 4층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달하여 네 개의 번역본 중 가장 강한 확신을 표현하였다.

두 번째 예시는 현장 상황을 기술하는 신문기사로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저택으로 들어가 확인한 4층 방의 모습이다. 금화와 물건들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토대로 범행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시 2	현장에 남겨진 금화와 물품
ST	The drawers of a bureau, which stood in one corner, were open, and had been, apparently , rifled, although many articles still remained in them. (147)
TT1	한쪽 구석에 있는 옷장은 서랍이 열려 있었는데 물건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 (18)
TT2	옷장 서랍은 열려 있었다. 많은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기는 했지만 살살이 뒤져본 듯했다 . (20)
TT3	한쪽에 놓인 탁자의 서랍이 열려 있었는데, 살살이 훑쳐 간 것이 분명했으나 서랍 안에는 여전히 많은 물건이 남아 있었다. (17)
TT4	방구석에 있는 테이블의 서랍들은 모두 열려, 마구 휘저어 놓았으나 그 속에 들어 있는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82)

저택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이므로, 위 예시 1에서와 같이 지각양태를 나타내는 어휘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강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뒤진 흔적은 분명하지만 서랍 안에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범행동기가 금전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서랍 안에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평소 증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듣고 접하면서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한 주관적인 태도임을 양태표현을 통해 보여준다. TT1에서는 ‘역력하다(환히 알 수 있게 또렷하다)’라고 강한 확신을 표현하였고, TT2에서는 보조형용사 ‘듯하다’를 활용한 관용표현을 사용하여 주관적인 판단이며 중간 정도의 확신이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내어 ST에서보다 확신의 정도가 낮아졌다. TT3에서는 ‘분명하다’라고 강한 어휘를 사용하였으나 ‘살살이 훑쳐 간 것이 분명했으나’라고 번역되어 훑쳐간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타내어 범행동기가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는 뒤팡의 추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되었다. TT4에서는 휘저어 놓은 상황

과 물건이 그대로 있음을 비양태 명제로 서술함으로써 양태표현을 사용한 ST보다 확신의 정도가 강해졌으며, 독자에게 그 명제 내용은 사실 정보가 된다.

다음 예는 피해자의 상태를 통해 범인이 초인간적인 강한 힘을 지닌 존재이며 잔인하며 야수적인 특성이 있음을 추론해내는 데 기반이 되는 내용이다.

예시 3	피해자의 상태(살해방법)
ST	On the hearth were two or three long and thick tresses of grey human hair, also dabbled in blood, and seeming to have been pulled out by the roots. (147)
TT1	벽난로 위에는 긴 회색 머리카락이 두세 뭉치 있었는데, 이 또한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뿌리째 몽땅 뽑힌 것 같았다. (18)
TT2	난로 위에는 굵고 긴 회색 머리카락 뭉치가 두셋 놓여 있었다. 머리카락은 피에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뿌리째 뽑힌 듯했다. (19)
TT3	난로 위에는 길고 굵은 회색 머리칼이 두세 뭉치 있었는데 역시 피가 묻어 있었고 뿌리째 뽑힌 것 같았다. (17)
TT4	벽난로 선반 위에 역시 피 묻은 흰 머리칼이 두어 줍 얹혀 있었다. 뿌리째 뽑힌 모양이었다. (82)

위의 예는 뽑힌 머리카락의 상태를 근거로 머리카락을 뽑는 장면을 추측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읽고 사건 현장을 방문한 뒤팽은 머리카락 뭉치 모근에 두피 조각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죽히 50만 개나 되는 머리카락을 한꺼번에 뿌리째 뽑는 데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범인이 초인간적인 힘을 가진 존재일 것이라고 추론한다. 네 개의 번역 모두 추측의 양태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TT1과 TT3에서 사용한 ‘-ㄴ 것 같다’는 추측이나 “직접 경험하였지만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기도 하며, TT4에서 사용한 ‘-ㄴ 모양이다’는 주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추리된 이성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발화내용에 대한 추측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사용한다(안주호 2012: 214-216). 이 예시에서도 TT4의 확신의 정도가 다른 번역본에 비해 객관적이고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예시는 굴뚝 안에 거꾸로 박혀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사 부분이며, 증인들이 저택에 들어가 직접 목격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다.

예시 4	피해자의 상태(살해방법)
ST	Of Madame L'Espanaye no traces were here seen; but an unusual quantity of soot being observed in the fire-place, a search was made in the chimney, and (horrible to relate!) the corpse of the daughter, head downward, was dragged therefrom; it having been thus forced up the narrow aperture for a considerable distance. (147-148)
TT1	레스파냐에 부인의 자취는 온데간데없었다. 벽난로에 검댕이 엄청나게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굴뚝 안을 조사해보았더니 (말하기조차 끔찍하게도!) 딸의 시신이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한 채 거꾸로 처박혀 있었다. (18-19)
TT2	레스파냐 부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난로에 많은 양의 검댕이 보여 굴뚝을 수색해보니 그 속에서 딸의 시체가 나왔다. 좁은 굴뚝 안에 거꾸로 처박혀 있었던 것이다. (20)
TT3	레스파냐 부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난로 근처에서 상당한 양의 검댕이 관찰됨에 따라 굴뚝을 조사했다. 그러자 입에 담기에도 무서운, 거꾸로 매달린 딸이 시체가 굴뚝에 끼어 있었다. 시체는 그런 상태로 굴뚝의 좁은 틈으로 상당한 거리까지 끌어올려진 모양이었다. (18)
TT4	레스파냐 부인의 시체는 이 방에는 없었다. 벽난로 속에 그늘음이 유난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수상하여 굴뚝 속을 찾아보았더니(말만해도 몸서리치는), 딸의 시체가 거꾸로 처박혀 있었다. (82)

양태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ST에서처럼 TT1과 TT4는 양태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사실임을 전달하고 있고, TT2와 TT3에서는 양태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TT2는 ‘-ㄴ 것이다’라는 강한 확실성을 나타내는 관용표현을 사용하여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사실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내었으며, TT3은 ‘모양’이라는 양태표현을 통해 굴뚝에 박혀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추론 내용임을 보여준다.

4.2 사건 이야기(신문기사): 목소리에 대한 증언의 특이성

두 번째로 뒤팽이 주목한 목소리에 대한 증언의 특이성 번역에 대해 살펴본다. 아래 예시는 모그 가의 저택에서 들린 비명 소리를 듣고 저택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서술한 첫 번째 신문기사 내용이다.

예시 5	모크가 저택 계단에서 들은 소리에 대한 첫 번째 기사내용
ST	By this time the cries had ceased; but, as the party rushed up the first flight of stairs, two or more rough voices, in angry contention, were distinguished, and seemed to proceed from the upper part of the house. (147)
TT1	그때쯤에는 비명 소리는 멈췄지만 계단 한 층을 달려 올라가던 사람들은 화를 내며 거친 목소리로 다투는 두 사람 이상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소리는 집 위쪽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18)
TT2	그들이 집으로 들어섰을 무렵 비명은 멎어 있었지만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뛰어오를 때 다투는 듯한 소리가 2-3차례 분명히 들려왔다. 그 소리는 3층이나 4층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19)
TT3	이때 비명 소리가 멈추었다. 사람들이 2,3층으로 뛰어올라가자 서로 다투는 좀 더 거친 소리가 분명히 들렸으며, 건물 위층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17)
TT4	그때에는 이미 비명소리는 그쳐 있었다. 그러나 일행이 층계의 처음 계단에 발을 올려 놓았을 때, 서로 다투는 성난 거친 목소리가 몇 마디 들려 왔다. 그 목소리는 윗층에서 나는 것 같았다. (81)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장소와 범인을 추론하는데 기반이 되는 내용이다.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간 사람들은 저택 4층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다. 네 번역 모두 비명소리의 출처에 대해서는 ‘-니 것 같다’는 양태표현을 사용하여 직접 들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추측을 나타내고 있지만, TT2는 ‘the upper part of the house’라는 장소에 대해 ‘윗층’이라는 다른 번역과 달리 ‘3층이나 4층’이라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TT4는 ST와 같이 양태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TT1, TT2, TT3에서는 ‘똑똑히’, ‘분명히’라는 양태표현을 사용하여 확신의 정도는 약화되는 결과를 보였다.

저택 계단에서 들은 다투는 소리에 대한 6명의 증언내용이 추가 기사에서 제공되는데, 이들이 들은 두 목소리 중 하나는 굵고 거친 프랑스인 목소리였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었으나, 다른 하나인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달랐다.

다음 예시 6의 경찰의 증언에서 ST는 날카로운 소리 주인공의 성별과 사용언어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TT1, TT2, TT3, TT4 모두 성별은 ST에서와 같이 강한 양태표현이 사용되었으나 TT1과 TT3은 ‘알다, 모르

다’라는 지각을 통한 확신을 표현한 반면, TT2와 TT4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양태표현이 사용되었다. 언어에 대한 증언에서는 TT1, TT3, TT4에서 ‘같다’는 중간정도의 확신 표현을, TT2에서는 ‘듯하다’라는 중간정도의 확신을 나타내는 양태표현으로 번역되었다.

예시 6	이시도르 뤼제트 (경찰)
ST	The shrill voice was that of a foreigner. Could not be sure whether it was the voice of a man or of a woman. Could not make out what was said, but believed the language to be Spanish. (149)
TT1	날카로운 목소리는 외국인이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스페인어 같았다. (21)
TT2	날카로운 목소리도 외국어로 말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 스페인어였던 듯하다. (23)
TT3	날카로운 목소리는 외국인의 목소리였다. 여자 목소리인지 남자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스페인어 같았다. (20)
TT4	날카로운 목소리는 외국 사람의 음성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남자의 목소리인지 여자의 목소리인지 분명치 않다. 무슨 소린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스페인말 같았다. (84)

아래 예시 7에서 이웃의 증언은 성별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ST에서는 남성이 아니라라는 점은 강한 표현 ‘sure’을 통해, 여성일 수 있음을 ‘might’라는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 조동사를 통해 제시하여, 독자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여성일지 남성일지 호기심을 갖고 추론을 이어갈 수 있다. 여성일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 TT1에서는 ‘-리 수도 있다’, TT2는 ‘-리지도 모르다’로 약한 확신의 정도를 나타냈고, TT3은 ‘-리 것이다’로 중간 정도의 확신을, TT4는 ‘단정할 수 없다’로 다른 번역에 비해 강한 확신을 나타냈다.

사용언어와 국적에 대해서는 ST에서는 ‘think’라는 표현을 통해 날카로운 소리의 주인공은 이탈리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중간 정도의 확신을 보여주었다. TT에서는 모두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같으나, TT1과 TT3에서는 ‘생각하기에, ~같다’는 한 가지 이상의 양태표현조합을 통해 중간 정도의 확신을 나타내었다. 이탈리아인이라고 생각한 근거는 역양으로 ‘확신

(convince)'한 것이며, 그 부분에서 TT1은 '분명하다'는 강한 표현, TT2와 TT3에서는 '믿다'라는 강한 표현, TT4는 '~이다'는 특정내용을 지정하는 서술격조사를 사용함으로써 네 번역 중 가장 강한 확신을 나타내었다.

예시 7	양리 듀발 (이웃)
ST	The shrill voice, this witness thinks , was that of an Italian. Was certain it was not French. Could not be sure that it was a man's voice. It might have been a woman's. Was not acquainted with the Italian language. Could not distinguish the words, but was convinced by the intonation that the speaker was an Italian.(149)
TT1	목격자가 생각하기에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사람 같았다 . 프랑스어가 아닌 것은 확실했다 . 남자 목소리인지는 잘 알 수 없었다 . 여자였을 수도 있다. 이탈리아어는 모른다.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억양으로 보아 이탈리아인이 분명했다 .(21-22)
TT2	날카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탈리아인이라고 생각한다 . 이탈리아어를 모르지만 억양으로 봐서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믿는다 . 적어도 프랑스인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 남자의 목소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 여인의 목소리인지도 모른다 . (24)
TT3	이 증인이 생각하기에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이탈리아인의 목소리 같았다 . 프랑스인의 목소리가 아닌 것은 확실했다 . 아마 여자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이탈리아어는 잘 알지 못한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억양으로 이탈리아인의 말이라고 믿었다 .(21)
TT4	이 증인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탈리아 사람의 음성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어쨌든 프랑스 사람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였다 . 그리고 남자의 목소인지 여자의 목소인지 단정할 수 없었다 . 이 증인은 이탈리아 말을 모르지만 그 액센트로 미루어 보아 말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증언하였다. (85)

나머지 날카로운 소리에 대한 4명의 증인은 지면 관계상 요약하자면, 네덜란드인 식당주인은 프랑스인 남성이라는 강한 확신을, 영국인 재단사는 독일인이라는 약한 확신을 나타냈으며, 스페인 장의사는 영국인이라고 확신했고, 이탈리아인 제과점 주인은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했다. 이 부분의 번역은 대부분 유사한 양태의미 정도를 나타냈다.

위의 증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날카로운 소리에 대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인 증인들의 의견이 모두 달랐다. 날카로운 소리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여러 양태정보는 독자들의 추리를 어렵게 하며 범인에 대한 궁금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서술자 '나'처럼 일반적인 분석능력의 소유자는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범인이 여자일지, 남자일지, 어느 나라 사람일지를 궁금해 하면서 추론할 것이다. 그러나 뒤팽은 모든 증인들이 날카로운 소리가 자국인인 아닌 외국인의 소리로 인식하고 증언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유럽 5개 강국 주민들 모두에게 생소하기 짝이 없는”(권진아 역 2018: 32) 소리였다는 점에서 얼마나 이상하고 특이한 소리였을지 도출해 내고,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일 수도 있다는 추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날카롭다기보다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라는 증언을 기반으로 사람의 소리가 아닐 수 있다는 추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양태표현은 추론의 단서를 숨길 수도 드러낼 수도 있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

4.3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텍스트 분석에서는 신문기사에 제공된 정보 중 뒤팽이 사건을 해결하는 추론과정에서 주목한 사항을 중심으로 인식양태표현의 번역양상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작품은 신문 기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특성이 있으며, 포가 뒤팽의 뛰어난 분석력과 관찰력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신문기사에서 주어지는 인식양태 정보와 그 번역은 뒤팽의 날카로운 안목과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독자들의 추론과정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명제 내용에 대한 확실성을 나타내는 언어표지의 번역양상을 양태의 미정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보면, 원천텍스트에서 나타내는 양태의미 정도와 네 번역본에 나타난 의미가 유사하게 번역된 경우도 있지만, 양태명제를 양태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비양태 명제(정언명제)로 번역하여 그 정도가 강화되거나, 양태의미의 정도가 다른 언어표지를 선택하여 강화 또는 약화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추론하여 숨겨진 범인을 찾아내는 유형의 소설에서는 정언명제를 사용하여 양태의미가 강화되는 경우 독자에게는 객관적인 사실, 즉 확실한 정보라는 효과를 주게 되어 독자의 호기심과 긴장감 유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태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확실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인지 아닐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주어 이야기를 읽으며 범인을 추론하는 과정에 긴장과 흥미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사건 해결의 이야기에서 뒤팽이 제시하는 추론 설명과 논리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정보로 바뀌어 번역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는데, 추리소설 구조의 형식을 따라 예측하면서 읽는 독자들의 추론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에서 양태의미를 나타내는 언어표지 사용방법의 관점에서 보면, 인식양태의 개념은 공통적일 수 있지만 양태의미를 언어표지로 구현하는 방법은 각 언어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목표언어의 경우 양태의미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언어표지가 많아 대체로 양태의미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원천언어표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의미정도를 표현하는 목표언어표지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추리소설 번역에서 양태의미의 효과를 인식하고 번역에서 적합한 표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원천언어와 목표언어에서 인식양태의미를 표현하는 어휘 구성, 문법적 구성에 대한 차이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포는 거미와 거미줄을 비유하여 말하는데,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이 저자는 교묘하게 이야기 망을 짜고 뒤팽과 같은 탐정은 이야기 속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게 되며, 이는 저자가 짜 놓은 이야기 망에 걸린 독자가 이야기 속에서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Lewis 1990: 98). 추론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에서 주어지는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관찰력과 지닌 평범한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져 있는 정보가 될 것이고, 뒤팽과 같이 뛰어난 통찰력과 이해력, 분석력을 지닌 추론가 또는 독자에게는 범인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러므로 발화내용에 표현되는 사실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번역에서 반영하는 것은 작품의 특성을 살리고 독자의 호기심과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사건이 먼저 제시되고 숨겨진 범인을 찾아내는 유형의 소설에서 범인을 밝히고 사건이 해결되는 이야기의 절정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저자는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범인을 숨기고, 독자는 범인이 누구인지 추측하며 찾는”(Nida 2001:114) 숨바꼭질 게임을 계속하게 된다. 사건 이야기와 사건해결 이야기라는 추리소설의 서사구조에서 확실한 정보와 불확실한 정보들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독자들의 관찰력과 분석력을 자극하고 호기심과 긴장감을 유지하며 논리적인 추론을 유도한다.

정보의 출처, 발화내용에 대한 미묘한 확신의 차이, 관점의 차이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인식양태체계는 정보를 분석하고 추론하여 숨겨진 범인을 찾는 유형의 소설에서,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되는 정보를 숨기거나 드러내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야기의 흥미를 증가시키고 긴장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장치이다. 독자는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여 사건과 범인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게 되므로 정보를 숨길수도 드러낼 수도 있는 인식양태표현의 번역은 추리소설의 서사구조 단계를 예측하며 읽어 나가는 독자의 추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추리소설의 번역에서 인식양태체계를 인식하고 번역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과 긴장감을 유지하며 추리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뒤팽이 사건해결의 추론과정에서 주목한 부분을 중심으로 인식양태표현의 번역사례를 제시하여 연구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고, 인식양태 또한 텍스트의 특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석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리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부여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보강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소영 (2002) 「확연, 당연, 개연의 양태 표현 연구」, 『한국어학』, 16: 217-236.
고영근 (1986/1995) 『단어·문장·텍스트』, 서울: 한국문화사.

- 고영근 (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서울: 태학사.
- 권재일 (1992/2011) 『한국어 통사론』, 서울: 민음사.
- 김지은 (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박재연 (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199-225.
- 박재연 (2003) 「한국어와 영어의 양태 표현에 대한 대조적 고찰: 부정과 관련한 문법 현상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2: 199-222.
- 박재연 (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광주: 태학사.
- 박진영 (2018) 『탐정의 탄생: 한국 근대 추리소설의 기원과 역사』, 서울: 소명출판.
- 서유경 (2007) 「양태의 번역: 노한 번역에서의 양태 번역 유형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1(1): 53-78.
- 서정수 (1994/2006) 『국어문법』, 서울: 한세본.
- 안주호 (2012) 『한국어교육과 양태표현』, 서울: 한국문화사.
- 엄녀 (2010) 『한국어 양태 표현 교육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5) 『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광주: 창비.
- 이경희 (2015)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Cathedral)」과 그 번역본에 나타난 시집 연구: 양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선웅 (2001)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26: 317-339.
- 이정옥 (2014) 「송사소설계 추리소설과 정담소설계 추리소설 비교 연구」, 박덕규·차선일 편저, 『한국 소설의 추리 기법』, 서울: 푸른사상사, 25-62.
- 이주라 (2010) 「근대 초기 번역 번안 추리소설의 수용양상 연구」, 『어문논집』, 61: 81-109.
- 이주리아 (2012) 「한일 번역의 양태 표현(modality) 연구: 신문 사설의 코퍼스 분석을 통하여」, 『번역학 연구』, 13(5): 175-196.
- 임동훈 (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의미학』, 26: 211-249.
- 장경희 (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연구』, 서울: 탑출판사.
- 조영일 (1998) 「국어 선어말어미의 양태적 의미 고찰」, 『한국어학』, 제8집 39-66.

- Bennett, Maurice J. (1983) 'The Detective Fiction of Poe and Borges', *Comparative Literature*, 35(3): 262-275.
Available at <https://www.jstor.org/stable/1770621>.
- Bronzwaer, Wim (1975) 'Deixis as a Structuring Device in Narrative Discourse: An Analysis of Poe's "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English Studies*, 56(4): 345-359.
Available at DOI: 10.1080/00138387508597708.
- Bybee, Joan L. and Suzanne Fleischman (1995)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An Introductory Essay, in Joan L. Bybee & Suzanne Fleischman (eds)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14.
- Coates, Jennifer (1995) The Expression of Root and Epistemic Modality in English, in Joan L. Bybee & Suzanne Fleischman (eds)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55-66.
- Dove, Gero N. (1997) *The Reader and the Detective Story*, Bowling Green: Bowling Green State UP.
- Dutta-Flanders, Reshmi (2017) *The Language of Suspense in Crime Fiction: A Linguistic Stylistic Approach*, London: Palgrave Macmillan.
- Fisher, Benjamin F. (2008)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Edgar Allan Poe*,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P.
- Halliday, Michael A. K. (1976) Modality and Modulation in English, in Gunther Kress (ed.) *Halliday: System and Function in Language*, London: Oxford UP, 189-213.
- Halliday, Michael A. K. and Christian M. I. M. Matthiessen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third edition, London: Hodder Education.
- Jahshan, Paul (2002) 'The Deferred Voice in "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The Edgar Allan Poe Review*, 3(2): 78-91, Penn State UP.
- Lyons, John (1977) *Semantics*, volume 2, Cambridge: Cambridge UP.

- Leech, Geoffrey N. and Mick Short (1981/2007)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second edition, Harlow: Pearson & Longman.
- Lewis, Ffrangcon C. (1990) 'Unravelling a Web: Writer versus Reader in Edgar Allan Poe's Tales of Detection', in Bell Ian A. & Graham Daldry (eds) *Watching the Detectives*, London: Palgrave Macmillan, 97-116. Available at 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07%2F978-1-349-10591-5_7#citeas.
- Nida, Eugene A. (2001) *Contexts in Translating*,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Nygaard, Loisa (1994) 'Winning the Game: Inductive Reasoning in Poe's "Murders in the Rue Morgue"', *Studies in Romanticism*, 33(2): 223-254. Available at <http://www.jstor.org/stable/25601058>.
- Palmer, Frank R. (1986/2001) *Mood and Modality*,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P.
- Pollard, Denis E. B. (1975) 'Fiction and Modality',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35(4): 472-483. Available at <https://www.jstor.org/stable/2106748>.
- Simpson, Paul (1993) *Language, Ideology and Point of View*, London & New York: Routledge.
- Thompson, Ann and John O. Thompson (1997) 'Not So Much "Whodunnit" as "Whoizzit": Margaret Millar's Command of a Metonymic Sub-Genre', in Jerome H. Delamater & Ruth Prigozy (eds) *Theory and Practice of Classic Detective Fiction*, Westport: Greenwood Press, 51-59.
- Thoms, Peter (2002) 'Poe's Dupin and the power of detection', in Kevin J. Hayes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Edgar Allan Poe (Cambridge Companions to Literature)*, Cambridge: Cambridge UP, 133-147. Available at <http://www.gutenberg.org/files/2147/2147-h/2147-h.htm>.

<분석대상 텍스트>

- Edgar Allan Poe (1841) '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The Complete Tales and Poems of Edgar Allan Poe* (1975), New York: Vintage Books.
- 권진아 옮김 (2018) 「모르그 가의 살인」, 『에드거 앨런 포 추리 공포 단편선, 모르그 가의 살인』, 서울: 시공사.
- 박광규 옮김·해설 (2003) 「모르그 가의 살인」, 『에드거 앨런 포 단편집 마리 로제의 수수께끼』, 서울: 국일 미디어.
- 홍성영 옮김 (1999) 「모르그 가의 살인」, 『에드거 앨런 포 단편 전집 3. 뫼비우스의 미소』, 서울: 하늘연못.
- 김병호 역 (1983) 「모르그街의 殺人事件」, 『세계단편문학대계 4: 포우 단편집』, 서울: 상서각.

[Abstract]

**Translation Analysis of Epistemic Modality in Detective Stories:
Focusing on Korean Translations of Edgar Allan Poe's
‘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Lee, Kyong-hee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translation method of epistemic modality in the translation of detective stories, focusing on four Korean translations of Edgar Allan Poe's short story, '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In order to examine the translation method of epistemic modality, first, the concept of modality and the system of modality were explored, second, English modal operators and Korean modal operators were categorized, and then translations of modal expression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is story has been described as the first work to see Poe's writing style and form shift from Gothic novels to modern detective stories, or ratiocinative stories in a Poe's preferred nomenclature. These detective stories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works in that they solve mysteries by reasoning. The ground of reasoning is propositions, and the factuality of propositions can be manifested by modality that generally refers to a speaker's opinion about the truth of a proposition expressed by a sentence. Particularly, epistemic modality which expresses the judgment of the degree of truth of the proposition, such as speculation, conviction, and possibility, can influence the reasoning process, suggesting the wrong or right directions towards solving the mysteries in detective stories. Epistemic modality is an effective way to bring suspense and curiosity in detective stories by hiding and revealing clues. Consequently, realization of epistemic modality has a critical role in detective stories, in turn;

the translation of epistemic modality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ranslated detective stories, to influence the reasoning process and bring suspense and curiosity to the readers.

Epistemic modality may be a general concept but its realization is language specific. It is realized by using various epistemic modal operators including auxiliary verbs, adjectives, adverbs, nouns, combined expressions, and orders of lexical components. The degree of commitment to the truth of a proposition, represented by modal expressions, may not be exactly the same in the source language and the target language. Given that the translation of epistemic modality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asoning process and bring suspense and curiosity to stories, recognition of epistemic modality systems and their different realization in the source and target languages is essential, particularly for translating detective stories.

▶ Keyword: modality, translation of epistemic modality, proposition, reasoning, ratiocinative (detective) stories

▶ 주제어: 양태, 인식양태 번역, 명제, 추론, 추리소설

이경희

동국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초빙교수

lee0246@daum.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비평, 번역교육, 포스트에디팅

논문투고일: 2019년 8월 4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6일